

본교회가 협력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타탐 교회(치앙다오)

Projects for Asia

베다니 예수마을 학교

열방 예수 생명 학교(GEM)

WEC 국제선교회 - METC

AM 105

에베소 교회(당지역)

엘림하우스

장학사업(유이, 주이, 류, 조이 등)

람방 고아원

송태우 노선표 : 담당 - 꼭

기사	오전 : 교회학교
롱 깨우	리젠 2 [8.30] - 골라관 10 [8.40]
롱 애	씨리폰 8 [8.30] - 홈브로 옆에 [8.40] - 오키드콘도 [8.50]
롱 솜	힐사이드콘도 [8.30] - 홈인타운 [8.40] - 더 어바나 [9.00]
교회차	타나완 [8.30] - 오씨런2 [8.50] - 룡르양 [9.00]

기사 오전 : 청장년예배

롱 깨우	미소네님만혜민 [10.00] - 그린힐 [10.20] - 라자팻 대학교앞에 [10.30]
------	---

기사 귀가편 - 오후 1.00 교회출발

롱 깨우	스타돔 -- 타닌 시장 - 메야 - 미소네
롱 애	센트랄 벳 - 루업축 시장 - 까터레이 - 시리폰
롱 솜	골라관 10 - 리젠 - 홈인타운 - 프로메 라다 백화점 - 에어포트 프라자
교회차	더 어바나 - 오씨런 2 - 룡르양

예배 차량운행

매주 수요일 pm 6:20
매주 금요일 pm 7:20
마야백화점 옆 그린힐 입구

교회 주간 일정 안내

구분	시간	대상	내용	
주일 예배	1부 am 09:30	교회학교통합예배		
	2부 am 11:00	청장년		
월	성경공부 am 10:00		풍삶	
화	성경공부 am 09:00	청장년	풍빛	
	am 10:30		세1	
수	예배 pm 7:00		찬양예배	
	목	성경공부 am 09:00	청장년 청년	세5
	am 10:30	세1		
금	성경공부 am 09:00			세3
	am 10:30			세1
토	예배 pm 8:00			기도회
	사역 am 10:00			
월~금	새벽 am 5:15			생명의 삶 QT

개척(설립)예배일 : 2006년 4월 23일

주후 2017년 8월 27일

제 11-35호

본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따른 은혜와 능력만을 전파하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입니다.

* 교회설립목적

예배를 살리는 교회 +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2017표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잠16:3)

은혜와 겸손으로
치앙마이 중앙교회
Chiangmai Central Presbyterian Church



성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금주명언

“믿음이란, 참착함과 평온함을 포함한다.”
-에드워드 J. 영-

www.ccpc.co.kr

parable1@hanmail.net

158-2 Moo 1. Tambon Tasara Ampure Muang
Chiangmai Jangwat Chiangmai 50000

☎ 교회) 053-850-506 팩스) 089-5600-225

+예배 순서 안내+

* 주일예배시간 : am 11:00

* 인도 : 김선국 목사

전면의 ppt 화면에 예배순서가 진행됩니다.

참회의기도 ----- 다같이
찬 양 --- 하늘의 문을 여소서! ----- 다같이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양 ----- 다같이
기도인도 ----- 최달웅 장로
찬 양 ----- 봉헌 ----- 찬양대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성도의교제 ----- **축복의 통로** ----- 다같이
말씀봉독 ----- 창세기강해 17:15-27 ----- 인도자
설 교 -- “현재의 믿음이 내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 인도자
찬 양 ----- 다같이
축 도 ----- 인도자



* 금주 수요일 - pm 7:00

☞ 말씀 : 김선국 목사(사무엘하 강해)

* 금주 금요 기도회 - pm 8:00

☞ 말씀 : 김선국 목사(요한복음 강해)

*금주 새벽 기도회 - am 5:15

☞ 말씀 : 김선국 목사(이사야 강해)

월	화	수	목	금
나라와민족위해	치앙마이땅위해	교회위해	주의종들위해	청소년들위해
남선교회원들	여선교회원들	팁장들	찬양대원들	교사들

+지난주 향기로운 예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시오! 주일헌금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십일조	김선국 이견우(배유자) 이범수(지명숙) 무명
일반감사	김선국 이견우(배유자) 신월중앙 송영돈(식사) 이재일(이혜숙:식사) 박종철(오순정) 김경희 박봉현(김득순) 김현주 배순기(최옥순) 이창훈(용광희) 조성수(김은희) 무명2
장학(선교)	김정애 최선화 김경님 최달웅 한미란 이견우(배유자) 무명
교회학교	김혜현 이주영 임혜인
합계	79,160B+1,000₩+10\$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643년 7월 1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회당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을 포함하여 5년 6개월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장로교 신학의 핵심사상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 문 27.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은 어떠한가 ?

답, 그리스도의 낮아 지심은 곧 그의 강생 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서 나서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애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 하심과 십자가 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누가 2:7 빌립보 2:6-8 고린도후서 8:9 갈라디야 4:4 이사야 53:3 마태 27:46 누가 22:41-44 갈라디야 3:13 고린도전서 15:3-4)

+9월 기도 담당자 및 행사+

주일	주일기도자	수	수요기도자	행사
03	김기욱 안집	06	박향래 집사	1. 01일(금) : 온가족 월삭 새벽기도회 2. 03일(주) : 교회학교 2017-18학년도 시작 및 교회학교 교사임명
10	우재석 장로	13	박윤신 집사	3. 04(월) : 가족장 교육 모임 3. 05(화), 07(목), 08(금) 성경공부 시작
17	임종열 권사	20	허연희 권사	4. 전체가족대심방 : 18일~29일
24	최달웅 장로	27	임미영 집사	

지난주 새 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름	전화번호	소속	이름	전화번호	소속
박봉현(김득순)	061.9072.012				

9월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청장년) *누락자는 말씀해주세요!

유난경(09) 최수연(10) 예미옥(22) 손종명(25) 최영철(30)

+지난주 말씀요약+

해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찰과 갈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히 4:12)

“엘 샤다이”(창17:1-8)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은 인관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려 13년 동안 아브람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는 13년 만에 드디어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한날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피력합니다. 이는 아브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유인즉,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너무 평안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아브람은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었고, 하나님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이스마엘이 끼어들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래서 안주하려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아브람의 믿음은 휴면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이제는 네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나이 99세, 사래나이 89세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 내 앞에서 행하라!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2. 완전하라!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2) 특별히 “내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겠다”(내 언약이라!) 즉,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이십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 이야기+

일상에서의 감사

잠 자면서 침을 몇 번이나 삼킬까요?

지난주간,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 번씩은 침을 삼키는구나!” 왜냐하면,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목이 너무 아팠고,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못해, 이른 아침, 병원에 갔더니 단순목감기로 생각하고 타이레놀과 항생제만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나 하루를 먹고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이튿날 그 병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따로 부르더니 어제보다는 보다 정성스럽게(?) 진료를 해 줍니다.

원인인즉,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목이랍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알레르기, 또는 과로와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 목젓이 많이 부으면, 그래서 침을 삼키기도 힘든 것이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생각해보니, 한국을 방문하고 온 후에, 곧바로 선교팀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느라 조금 무리를 한 것이 원인인 듯 했습니다.

주사도 맞고, 약도 다른 것으로 처방받고, 하루 이틀을 조심하자 차도가 나타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깨끗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침을 삼키기 힘들어 밤잠을 설쳐대는 정도는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침을 삼키는 것도 감사해야 하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소하고 무심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혀로 오감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다섯 손가락을 움직여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것도...

하다못해 시원스럽게 꺾는 방귀마저도...

“아~!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는구나!” 잘 알면서도 피부에 와 닿지 않던 말씀이 이제사 눈에 들어옵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은 종을 깨닫게 하시네요!^^

지난주 건축헌금자	이건우(배유자)	이범수(지명숙)	배순기(최옥순)	무명
남은건축비	2,570,000B	남은에어컨비		77,654B
음향비	30,765,270\	現 건축헌금잔액		472,186B

지금은 교회학교 시대

* 2016-17 교회학교 교육주제와 방향 및 목표*

1. 교육주제 : "예수 + 꿈"
2. 교육방향
 - 1) Who is God? - 신관 확립
 - 2) Who am I? - 자아 정체성 확립
 - 3) What is the world? - 문화 세계관 확립
 - 4) What is my work in the world? - 성경적 비전 확립
3. 교육목표
 - 1)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 경험하기
 - 2) 소그룹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키우기
 - 3) 그리스도의 제자화 세우기

2016-17 각 학년별 교사 담임 *괄호는 출타교사

교육팀장	유치부	드림 1	드림 2	드림 3	드림 4
조선제	최애순	정진양		임미영(총무)	
드림 5,6	비전 1	비전 2	비전 3	비전 4	비전 5
나민숙	여미남	주경미	김재상	조선숙	이소영 김수경

1. **오늘은 2016-17학년도 졸업예배를 드립니다.**
1년간(52주) 개근한 친구들에게 상품을 수여합니다.

- 드림 1: 김은총
- 드림 2: 임요한,도가은,김보배
- 드림 4: 임유진
- 드림 5,6: 도준표,이신원
- 비전 2: 이주찬
- 비전 4: 이주아
- 비전 5: 김유찬



2. **다음주 부터(9/3일) 교회학교는 2017-18학년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3. **금일 교사회의 있습니다.**

기도담당자(학생 or 교사)

8/06	나민숙 교사	8/13	여미남 교사
8/20	주경미 교사	8/27	김재상 교사

+ 사진 한 장 +



제10회 홀리시티 치아마이 식사섬김 8/25

+교회소식!+

1. 본 교회를 찾아 주신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합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인교적부를 작성(뒷편 비치)해서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하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생명의 삶 QT집(예조, 새나 포함) 9월호가 나왔습니다.
- ② 내일(28일)은 가족장 모임을 교회에서 갖습니다. 오전 9:00
- ③ 9월 첫 주부터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화(오전8:30):세라3권팀, 목(오전10):세라1권팀, 금(오전9시):세라6권팀
-성경공부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족장에게 신청바랍니다.
- ④ 남녀선교회 주회 가족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시 : 10월 20(금)~21(토) -장소:호라이즌 호텔(예정)
-주회 : 남녀선교회(신청은 가족장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이유로 출타한 교우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봉(이순주) 전상윤 정애희 유형식 권희숙 허관술(양광자) 송미경 백성례
이재진 조영출 박성국 김현진 정진일 이범수(지명숙) 박종철(오순경)
박병학(이근자) 박봉현(김득순)

금일 식사 섬김	이재일 장로(이혜숙 권사) : 범사감사
금일 식사 봉사	양선가족(임미영 가족장 외)
다음 주 식사봉사	충성가족(박윤신 가족장 외)

식사 후에 식판을 우물가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섬기겠습니다.

+공감+



“짜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아직까지도 살아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FW 니체의 ‘짜라투스τρα라는 이렇게 말했다’(홍신문화사·145~146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CS 루이스는 현세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고민할 뿐이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인생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과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생이고, 둘째는 영원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옳지 않은 것에서 답을 찾으며 헤매는 인생입니다.

니체는 영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사는지 모른다면 살아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그 해답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초인의 힘’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초인도 거인도 없습니다. 죄성이 가득한 괴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초인의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영원의 삶에 다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엡 2:8)

-한재욱 목사(서울 강남비전교회)

+생각해보기!+



아래에 언급한 증상을 한번 체크해 보자. 주요 우울증의 진단 기준(DSM-IV)은 다음과 같다.

1. 2주 이상, 거의 매일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
2. 일상의 대부분의 일에서 관심 또는 흥미의 감소
3. 식욕 감소/증가(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 한 달에 5% 초과)
4. 불 / 과수면
5. 정신운동 지연 또는 정신운동 초조
6. 피곤 또는 에너지의 감소
7.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8. 집중력 저하, 유우부단
9. 반복적인 자살 생각

아홉 가지 증상 중 5개 이상 (1, 2번 중에 하나 이상) 있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저하를 유발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5개 이상인 경우 이미 심각한 우울증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우울증은 반드시 꼭 낫는 병이다!

-강선영 박사(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한국목회상담협회 감독)

그림독상

죄의 짐, 너는 주께 맡겼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죄에게서 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 2:17-18)

www.HOSONNA.net *말씀듣는 목상* 목상, 그림, 김선영, 채백, 반정호 *원 목 2.5 원과 1원* 책으로 나왔습니다.

* 건강비결

85회 생신과 결혼 55주년을 건강하게 맞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정정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건 있잖아, 우리 두 사람이 결혼 할 때 합의 한 것 때문이야!”

“무슨 합의를 하셨는데요?”

“말다툼이 길어져서 시비가 벌어졌구나 싶으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세 바퀴 돌아오기로 한 거라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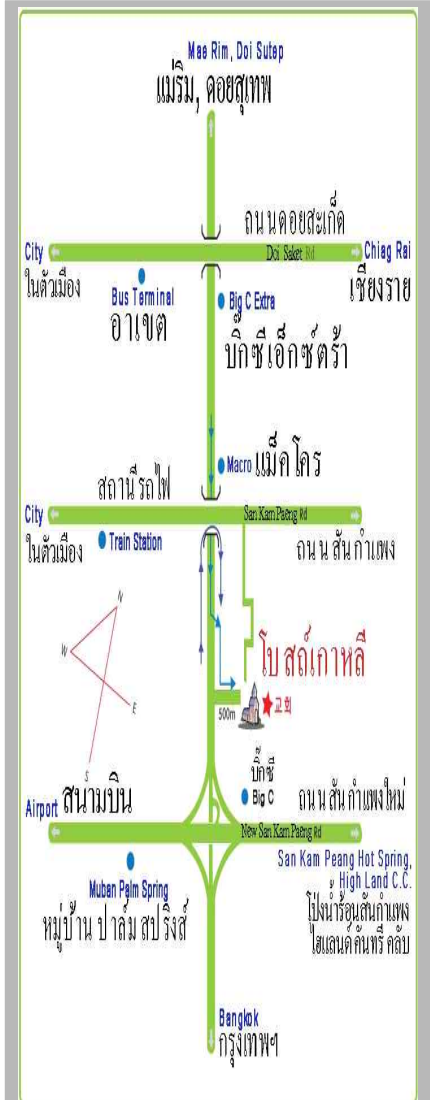
“그게 건강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생각을 해 봐 55년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동네를 세 바퀴 돈다면!”

“건강 안 할 수가 없겠지?”

“그 것도 하루 서너 번 짝!”

교회오시는길



태국운전기사에게 보여주세요!

โทร เลขานุการ (089-553-7213)

+ 예화 +

프랑스의 파리를 여행하던 한 미국사람이
파리시내의 장신구점에서 한 중고품 호박 목걸이를 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공항에서 이상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스럽게 생각한 그 사람은 목걸이를 들고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부탁하였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그 목걸이를 2만 5천불에 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더욱 권위있는 감정사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현미경으로 조사해 본 그 감정사는
"이 목걸이를 나에게 파신다면 3만5천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금증을 도저히 풀수 없어서
"도대체 그 목걸이가 왜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나?"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감정사는 그를 현미경앞으로 인도하고,
"자 이것을 보세요."
그가 현미경을 들여다 보자 그 사람의 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프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투 조세핀>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 부터)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애인 조세핀에게 준 선물 목걸이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귀하고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값이 나가고 가치있는 하늘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함부로 우리 몸을 내던지며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 좋은 글 좋은 느낌 +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국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 오른팔과 같았던 켄 세갈이 쓴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이 있다. 켄 세갈은 자기가 모셨던 스티브 잡
스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을 '단순성'이라고 소개한다.

잡스는 항상 '회사의 비전도, 제품의 디자인도 심플해야 한다. 복잡하
게 생각하면 힘을 잃는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바를 단순함이라는 날개
를 달고 비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단
순함이 필요하다.

우리가 단순하게 추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까?"라는 질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하
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
기를 힘쓰노라"(고후 5:9)

바울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힘쓰고 노력
했다. 그러했기에 자신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예
비하신 면류관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
다. 우리의 선택이 좋은 선택을 넘어 올바른 선택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선택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다. 그 선택을 위해 필요한 단순성이 바로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티기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란인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
기 위해 장소를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승낙했다. 주방을 사용해도 되겠
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 문제가 생겼다. 주
방기기 하나를 망가뜨려 놓은 것이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서 앞으로 다시는 빌려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
다. '앞으로 빌려주면 안되겠구나' 그런데 잠시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결론은 '아니다'였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
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할 일이었다. 주방기기가 망가졌다고 영혼을 구원하
는 전도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는가. 제직회 때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
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며 받아들여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반응한다. 내가 살아온 방식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생
각과 고집대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힘들
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
한 질문이다. 날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자. 이 단순함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되리라 확
신한다.

[출처] 순복음가족신문 주정빈 목사 (순복음교회 강남성전)